

일요일, 법회가는 날

범어사 포교사회, 11년간 매주 일요일 법회 열어



부산 범어사 포교사회는 3월 6일 일요일법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일반 사찰에서 법회는 초하루와 보름, 지장제일과 관음제일에만 열린다. 사찰에 따라서는 약사, 미타 등 한두 번의 법회를 더 갖기도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주기와 맞지 않아 일요일법회를 여는 사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11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내 설법전에서 일요일특별법회를 봉행해 왔다.

부산 범어사 포교사회(회장 신규범)는 3월 6일 설법전에서 일요일법회 창립 1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정여 스님은 "일요일법회의 모든 불자들이 정진력으로 내 이웃과 불법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들에게 불법을 전한다면 우리 사회 또한

맑고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포교국장 범기 스님은 "조계종 교구본사 중 최초로 포교사가 주축이 돼 진행되는 대중법회인 만큼 다른 사찰의 유사법회의 모범이 되도록 정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신규범 범어사포교사회장은 "11년간 높은 법력과 탁월한 지도력으로 일요일법회를 이끌어 주신 스님과 포교사회 전 회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더 큰 포교의 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참된 보살행을 실천하고 정진하자"고 말했다.

범어사 일요일법회는 조계종 교구본사 중 최초로 포교사가 주축이 돼 진행돼 왔다. 범어사 금정불교대학포교사회의 주관으로 2001년

3월 재가불자들이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돼 왔다. 2002년 1월 부산경남포교사단 내 '지역봉사분야 범어사포교사회(회장 신규범)'를 발족해 법회를 전담하면서 이후 일요일법회는 11년 간 불자들에게 다양한 생활법문을 제공했다.

범어사 일요일법회는 회원제를 실시해 불자들의 체계적인 수행활동을 돕고 있다. 법회에서 법문을 듣고 불행(佛行)으로 옮기는 것은 필수다. 이들은 부산 내 사회복지시설 및 병원 등의 포교사각 지대에서 보시행을 펼치는 등 회원 단위로 활동을 진행해 신도들의 참여율도 더욱 높이고 있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를 찾아서

“가게 문 열기 전 ‘관세음보살’ 외워요”

다선일미 실천하는 차 포교사 다실 여여해, 전영옥 불자

3월 꽃샘추위가 매섭다. 한 커피이 광복로 경륜빌딩 1층 다실 '여여해' 문을 열고 들어섰다. 커피숍을 기대했던 커피가 아차하고 발길을 돌리려고 한다. 잘나 상냥한 미소를 띤 차집주인의 손에 이끌려 차를 시음했다. 차를 낮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다실 '여여해' 대표 전영옥(43, 여여해) 씨는 즉석해서 조출한 다품(茶品, 차를 품평함) 자리도 마련했다.

부산 패션1번지 광복로에 자리한 다실 '여여해'의 상호명은 전영옥 씨의 별명이다. 차 수행을 포교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전영옥 씨는 초등학교 때부터 차를 즐기마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동경하며 다인을 꿈꿨다. 그의 다인 인생은 부산 여여선원 신학교 회장이던 어머니를 통해 여여선원에 가게 되면서부터다.

"한 스님께서 불이문 앞에서 '이 문을 통과할 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며, 세상이 얽음알이를 다 버리고

들어오라'고 설명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불같은 신심이 일어나 당장 신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수없이 외운다. 그리고 가장 먼저 우려낸 맑은 차를 부처님 전에 공양으로 올리고 난 뒤에 일을 시작한다. 비로소 몸과 마음이 손님 맛을 채비를 마치는 것. 이는 전 씨가 처음 차집을 열었던 10년 전부터 이어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전 씨는 차가 곧 수행의 방편이라고 확신한다. 도반들과 차담을 나눌 때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나누는 법



에서 불교만 유난히 느끼게 하는 것 같지만, 느린 만큼 더 많은 것을 자세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평소 재가불자들이 주된 손님이려면 해제철이면 선방스님들이 여여해를 찾아온다. 전 씨는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는 항상 존경의 마음을 담아 차 공양을 올린다. 얼마 전 1주기를 맞은 故 범정 스님께서도 전영옥 씨에게 차 공양에 대한 보답으로 귀한 다구를 선물해주기도 했다. 가게 한 칸에는 한 스님께서 티벳에서 가져온 만다라와 족자 등이 전시돼 있다. 또 보통 전통 차집과는 달리 무선인터넷과 최고급 음향 및 영상시설을 갖춰 차별화하고 있다. 차와 불교에 생소한 젊은 세대와 이웃종교인들도 누구나 차맛을 음미하며, 다도문화 속에 담긴 불교를 어렵듯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포교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편이 '차'잖아요.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법담을 나누며 부처님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051)256-9859 박지원 기자

차 공양으로 하루 시작... 10년 동안 이어와 법정 스님께 차 공양 보답으로 다구선물 받기도

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서인지 손님 대부분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자가 많다. 혼자 찾아와 차집에 비취 자신을 되돌아보고, 여럿이 함께 차를 나누며 공부를 점검하기도 한다.

"차를 마시면 일단 마음이 차분해지니 스스로를 되돌아볼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차담은 잡담이 아닌 법담으로 이어지는 대화의 자리를 열어주고 마음을 나누게 도와주죠.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

'5대결사운동' 결의 다져

범어사·조계종부산聯 3월 17일 부산 KBS홀

이명박 대통령이 기독교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한 이후 부산지역 불교계에서는 종교편향정부와 장로대통령이라는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산 범어사는 부산불자들과 함께 조계종 '5대결사운동'에 대한 실천 결의 의지를 굳게 다질 계획이다.

부산 범어사(주지 정여, 부산불교연합회장)는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불, 안국선원장)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 부산KBS홀에서 민족문화수호대법회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날 행사에 스님 500여 명, 조계종 소속 신행단체 및 재가불자 7000여 명 등 최소 8000여 사부대중이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공보대변인 정산 스님(범어사 총무국장)은 3월 3일 부산 황련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집행부는 화쟁위

원회를 만들어 상생과 화합, 대화와 소통을 이끌어왔으나, 정권은 한 없이 종교 편향을 책동해 왔다"며 "민족문화수호대법회는 정부 규탄대회가 아닌 우리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인지 느끼고 알아차리고자 마련된 행사"라고 말했다.

정산 스님은 "참가자 스스로 반성하고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전통문화에 한걸음 더 다가야 한다. 부산만의 특색을 살린 즐거운 공연이나 영상물 등을 계획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정산 스님은 "유네스코에서 팔만대장경, 석굴암을 지원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정작 우리는 우리 문화재를 보전하지 못함을 반성해야 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오랫동안 전승되고 계승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올해 연등축제 어떻게? 봉축슬로건·창작등 공모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정여, 범어사 주지)는 3월 7일 부산시민연등축제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축제는 4월 15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서막을 올릴 예정이다. 4월 29~30일 광복로 일대에서 '봉축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젊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봉축연합대법회'는 5월 7일 오후 3시 구덕종합운동장에서 진행하고, 오후 6시 축제의 백미인 제등행진을 시작한다. 제등행진은 구덕종합운동장을 출발해 대정로를 경유, 오후 8시 부산역 광장에 집결해 '회향대동한마당'으로 축제의 막을 내린다.

한편 '봉축슬로건 공모전'과 '창작등경연대회'를 통해 축제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다.

'봉축슬로건 공모전'은 부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주제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하는 내용과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부산시민연등축제를 통한 부산사랑과 시민과 함께 하는 축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당선작 1점 30만원, 가작 1점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3월 28일까지 연합회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창작등 경연대회'는 부처님오신날, 부산 상징, 전통문화, 기타 창작 등 다양한 주제로 표현 가능하다. 우수작은 제등행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출품규격은 가로 50cm, 세로 100cm, 폭 50cm 이내로 제한된다. 우수작 품에는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특선 30만원, 입선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051) 867-0501~3 www.bba48.or.kr

박지원 기자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덕유산 청다향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순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 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 게 : 25kg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계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두타행자 종일 스님 입적

평생 수행·두타행 실천... 11일 경주 기림사에서 다비

출가 이후 수행에만 전념해 온 불국사 종일 스님이 세남 50, 법랍 27년으로 3월 10일 입적했다.

종일 스님은 1985년 월산 스님은 은사로 출가, 1985년과 1988년 사미계와 비구계를 수지했다.

사미 시절이던 1986년 천안 광덕사선원 동안거를 시작으로 용화사 법보선원, 덕숭총림선원, 범어사선원, 운부암선원, 내소사선원, 대흥사 동국선원, 남국선원 무문관, 무일선원무문관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출가이후 지난해까지 25년을 빠짐없이 정진했다.

노덕현 기자

2007년 골암으로 왼쪽팔을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함께 발우공양을 할 수 없으니 무문관에서 수행하겠다고 제주 남국선원과 경주 무일선원 무문관에서 정진을 이어가기도 했다.

해제철에는 해남 미황사에 머물렀던 스님은 매일 새벽예불을 마치고는 남불대 대중화장실을 4곳이나 돌아다니며 청소하고, 삼시공양 후에는 쓰레기 봉지를 들고 포행을 다녔다. 또한 마음과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 상담과 치료해주기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스님의 다비식은 3월 11일 오전 11시 경주 기림사에서 엄수됐다.

박지원 기자